**엔론 사태 다시 보기를 통한 분식회계 위험성과 회계 감독 중요성 재고**

|  |
| --- |
| 2022년 국내 주요 은행에서 600억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판 엔론 사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회계 감독 중요성이 주목되는 지금 엔론 사태 다시 보기를 통해 분식회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 |

**[개요 및 분식회계 배경]**

**□ 분식회계 개요**

* 엔론의 회장인 케네스 레이가 CEO 제프리 스킬링에게 부채 청산을 명령하였고, 스킬링은 회사의 구조조정이 아닌 장부상 조작을 택하게 됨

\* 단순히 충담금을 조정해 감가상각을 늦추는게 아닌 분식회계를 감행

* 제프리 스킬링의 컨설턴트 마인드는 경영의 구체적 실행이 아닌 새로운 혁신 도입에 대한 집착
* 천연가스를 엔론의 핵심사업으로 키우고 증권화해 거래 시장까지 만든 업적이 있지만, 선물투기에 의존한 수익구조로 경영 실패가 됨

\* 실물투자나 자본집약적 사업보다는 금융중개업을 육성하였고, 물적자산보다는 인적자산을 주시하는 경영전략을 추구

**□ 분식회계 배경**

* 결국 대외적으로는 건실한 에너지 기업이였지만 실체는 부실기업이였던 엔론은 각종 사업에 문어발식 참여만 하게 됨
* 1998년 참여한 통신사업은 엔론 파산에 결정적인 역할로 엔론의 인수 및 직접 건설 했던 3만 킬로미터 광통신망은 엔론에게 큰 빚이 됨
* 엔론의 경영진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이 아닌 회부장부를 조작하여 회사를 건실하게 보이도록 조작
* 외부감사 아서 앤더슨의 협조로 5억 달러의 부실을 랩터 조합이라는 유령회사에 숨겼고, 월드컴과 회선 임대 교환거래로 매출을 조작 하였음

**[의혹 제기 근거]**

**□ 엔론의 불투명한 거래에 대한 의혹 발생**

* 2000년 10월 엔론과 산하 파트너십간 거래에서 막대한 부실이 발생되었음이 밝혀짐
* 2000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6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공표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엔론의 불투명한 경영 관행에 대한 비판 고조

**□ 엔론의 외형과 실적이 과대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**

* 엔론의 파트너십 운영과 관련 12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가 소멸되었음을 공표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도 하락

\* 2000년 매출은 당초 발표한 1007억 달러가 아니라 63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

(발표된 순이익은 25억 7천만 달러이지만 실제 내부 유보된 순이익은 4억 7400만 달러에 불과)

=> 이후 무디스가 엔론의 장기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Baa로 강등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엔론과의 거래를 회피하게 되었고, 2001년 12월 4일 공식적으로 파산 선언

**[이후상황]**

**\* 사베인스 옥슬리법 제정**

* 엔론사 파산 이후 월드컴 등 대기업의 회계 부정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단행
* 기업 회계에 대한 더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

=> 2000년 초반 기업 회계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국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분식회계는 여전히 발생하는게 현실 입니다. 기업 회계에 대한 기준은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하며 감시 이슈는 꾸준해야 합니다.